

# 그날 밤 우리는

이나영 글 · 해랑 그림



휴대 전화 속 사진 한 장,  
그리고 감춰진 우리들의 이야기

#친구 #우정 #관계 #따돌림



글 이나영

그림 해랑

출판사 시공주니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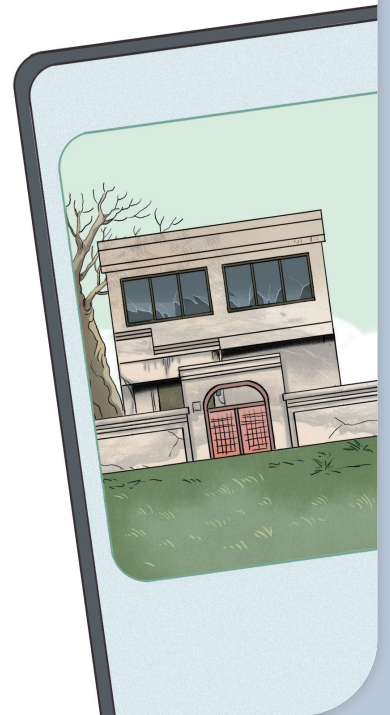
분량 164쪽

정가 13,000원

대상 초등학교 5~6학년

## 도서 소개

이레는 벌써 3일째 결석이다. 담임 선생님은 이레가 폐가 지붕에서 떨어져 입원 중이라는 말을 전한다. 늦은 밤, 이레는 왜 폐가에 간 걸까. 반 아이들은 이레의 빈자리를 보며 수군대기 시작하고, 시간이 지날수록 이레에 대한 무성한 소문이 퍼져 나간다. 전학 온 이레와 함께 사총사로 불렸던 민아와 희서, 나정은 이레의 병문안도 가지 않고 침묵을 유지한다. 어느 날, 나머지 세 아이들 휴대 전화에 도착한 폐가 사진 한 장. 질투와 소외로 어긋나기 시작했던 사총사의 관계가 조금씩 드러난다. 그날 밤,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?



## 교육과정 연계

5학년 2학기 국어 <마음을 나누며 대화해요>

5학년 2학기 국어 <겪은 일을 써요>

6학년 2학기 국어 <작품 속 인물과 나>

- 읽기 전
- 읽기 중
- 읽기 후

### ‘그날 밤 우리는’ 예상하기

표지를 보며 질문에 답하고, 나만의 질문을 만들어 봅시다.

왜 휴대 전화를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을까요?

이곳은 어디일까요?

-----

-----

-----

-----

나만의 질문 만들기

팔찌는 왜 끊어졌을까요?

-----

-----

-----

-----

-----

-----

-----

-----

-----

-----

-----

-----



표정에서 어떤 감정이 느껴지나요?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?

나만의 질문 만들기

-----

-----

-----

-----

- 읽기 전
- 읽기 중
- 읽기 후

## ‘그날 밤’ 우리의 마음은

삼총사에서 사총사, 그리고 다시 뿔뿔이 흩어진 민아, 희서, 나정.  
 각 상황에서 인물은 무슨 생각을 했을지, 어떤 마음이었을지 생각해 봅시다.

민아가 유학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6개월 만에 돌아왔다.



민아



희서

(이레가 전학오기 전) 우리는 삼총사지만 희서 옆에는 항상 민아가 있다.



희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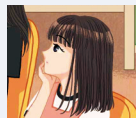


나정

누군가 삼총사에게 ‘그날 밤’ 폐가 사진을 보냈다.



민아



희서



나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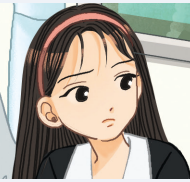
폐가 사진을 보낸 사람은 누구일까요?

- 읽기 전
- 읽기 중
- 읽기 후

### ‘그날 밤’ 폐가에서는

그날 밤 폐가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?

인물들의 말과 행동을 참고하여 폐가에서 있었던 일을 예상해 봅시다.



그렇다고 해서 이레가 잘못되기를 바랐던 건 아니다. 더구나 폐가에서 떨어질 만큼은 더더욱 말이다. 내가 화가 풀릴 때까지만 골탕 먹일 생각이었다.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다.

“너 진짜 웃긴다. 너야말로 이레 싫어한 거 아니야? 그리고 내가 사진 보냈다는 증거 있어?”

“그만 좀 하면 안 돼? 오늘 재밌게 놀기로 했잖아.”

“너는 왜 제삼자처럼 말해? 그날 폐가 놀이도 네가 시작한 거잖아.”

“아니. 너도 좋다고 했잖아. 그리고 술래잡기는 민아 네 생각이었잖아.”



“나 진짜 무서워.”

“무섭긴 뭐가 무서워. 이레도 괜찮다잖아.”

“폐가 놀이, 관히…… 해서…….”

이레와 아이들은 담력 테스트라도 하려고 폐가에 간 걸까? 그런데 왜 이레만 지붕에서 떨어진 걸까? 무엇보다 아이들은 왜 이레의 병문안을 가지 않는 걸까? 답을 알 수 없는 질문들이 쏟아졌다.

‘얘네들 친구 아니었어?’




---



---



---

- 읽기 전
- 읽기 중
- 읽기 후

## ‘그날 밤’ 나와 닮은 인물은

여섯 명의 등장인물 중 나와 가장 비슷한 인물은 누구인가요?  
또, 만약 나라면 아래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?

### 나와 가장 비슷한 인물은...

					
<input type="checkbox"/> 민아	<input type="checkbox"/> 희서	<input type="checkbox"/> 나정	<input type="checkbox"/> 주미	<input type="checkbox"/> 가은	<input type="checkbox"/> 이레

### 나와 비슷하다고 생각한 점

### 나와 다르다고 생각한 점

### 내가 ( )라면

	<input type="checkbox"/> 민아 전학생 이레가 지호와 친하게 지낸다.		<input type="checkbox"/> 희서 민아가 내가 아닌 이레와 짝을 한다.
	<input type="checkbox"/> 나정 민아가 단체 채팅방에서 화장으로 흉터를 가릴 수 있는지 물어본다.		<input type="checkbox"/> 이레 언제부턴가 민아가 나를 교묘하게 무시한다.
	<input type="checkbox"/> 주미 화장실에서 폐가 놀이에 대해 들었다.		<input type="checkbox"/> 가은 우연히 폐가에 간 사총사를 보았다.

---



---



---

- 읽기 전
- 읽기 중
- 읽기 후

## 내가 생각하는 '좋은 친구'는

내가 생각하는 '좋은 친구'는 어떤 친구인가요?

나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'좋은 친구'인가요? 나의 '친구 점수'를 매겨 봅시다.

### <예시>

이야기를 잘 들어 주는 친구  
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도와주는 친구

나와 관심사가 비슷한 친구  
항상 주변 사람들을 웃겨 주는 친구

일	내가 생각하는 좋은 친구	나의 '친구 점수'
1		
2		
3		
4		
5		
6		
7		
8		
9		
10		



어린이책을 통해

건강한 마음, 올바른 시선, 바른 성장을 도모해 온  
시공주니어가 올해로 30주년을 맞았습니다.

시공주니어를 향한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 
새롭게 변화하며, 건강하고 아름다운 어린이책을 만들겠습니다.

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더 나은 세상, 더 좋은 세상을 꿈꾸며  
변함없는 친구로 늘 아이들 곁에 있겠습니다.



시공주니어 신간 소식

**주소** 서울 성동구 상원1길 22, 굿타워 7-8층

**대표전화** 02-3486-6877 **주문전화** 02-2046-2800

**팩스** 02-598-5602